



범용

한글학교 역사문화 수업자료

한국의 세계기록유산





활동지 1

몸으로 한글 만들기

친구와 함께 만든 ‘한글 몸 놀이’를 해 보고 사진을 찍어 봅시다.

ㄱ	ㄴ	ㄷ	ㄹ
ㅁ	ㅂ	ㅅ	ㅇ
ㅈ	ㅊ	ㅋ	ㅌ
ㅍ	ㅎ	한	글



활동지 1

훈민정음 해례본 이해하기

 다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입니다.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세요.

**'훈민정음 서문'에는 한글을 만든 목적이 쓰여 있어요.
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알아볼까요?**

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로 쓴 글과 서로 통하지 않는다.
그러므로 백성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내 자기 뜻을 글로
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

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
일상에서 편안하게 쓰게 해 주고자 할 따름이다.

便	:사·새·내·내	:물	무	니·이	文	나
安	:ろ·로·이	:홍	홍	르·런	字	랏
한	:마·스·로	:노	노	:내·고	전	종:말
·크	:다·률	:미	미	제·저	·추	·와
후	:히·여	:하	하	저·쁘	·로	로·미
·고	:여·률	:쁘	쁘	제·쁘	·로	서
·저	:수·字	:어	어	저·쁘	·린	서·르
홍	:빙	:어	어	제·쁘	·린	中
속	:니	:엿	엿	저·쁘	·령	중:국
·리	:겨	:밍	밍	제·쁘	·령	·국
·미	:날	:비	비	제·쁘	·도	에
니	:로	:너	너	제·쁘	·도	달
·라	:뿌	:노	노	제·쁘	·디	·아
	:메	:니	니	제·쁘	·디	·나



활동지 1

훈민정음 해례본 이해하기

 다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입니다.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세요.

아래의 단어를 찾아서 위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표시해 보세요.

나 아 르 겨 달

便	:사·새·내·내	:몰	모	니·이	文	나
安	큰	훔·로·이	훔	르·런	문	랏
한	:마·스·를	:노	내	고·전	자	:말
·크	·다·물	의	제	져·추	종	쓰
·후	:희·여	하	쁘	·로·로	:미	
·고	·여·롭	느	薨	로·로	서	中
·져	:수·字	·니	로	로·미	루	동
·홍	·빙	·니	배	어	수	국
·상	·니	시	어	린	못	
·로	·겨	·라	려	百	디	에
·미	·날	·여	셔	姓	·달	달
·니	·로	·비	페	성	·아	아
·라	·뿌	·너	·도	·이	·니	·니
	·메	·겨	·디	호	·싸	



활동지 1

훈민정음 해례본 이해하기

다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입니다.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세요.

便	:사·새·내	:물	무	니·이	文	나
安	한	昆	운	르	를	랏
한	:마·스	로	노	내·고	전	장
·乞	·다·을	·이	·미	제	저	·와
·呼	·히	·여	·하	·쁘	·훙	·로
·고	·여	·을	·하	·쁘	·로	·미
·저	:수	·야	·니	·들	·배	어
·呼	字	·야	·라	시	이	서
·冰	종	·어	·라	·리	·린	中
·水	·니	·엿	·러	·르	·수	國
·米	·로	·비	·셔	·스	·못	·에
·니	·날	·명	·페	·도	·디	달
·라	·로	·너	·디	·페	성	·이
	·부	·노			·디	아
	·메	·니				·니
						·씩

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아래에 적어 보세요.



활동지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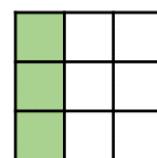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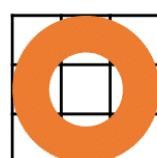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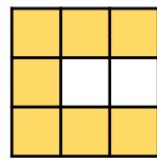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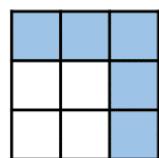
훈민정음 해례본 이해하기

‘한글 지우개 도장’으로 나만의 ‘한글 멋 그림 물건’들을 만들어 보세요.

준비물

- 지우개 4개
- 사인펜
- 조각칼
- 면장갑
- 고깔모자나
꾸밀 용품
- 종이
- 색깔 인주
- 스탬프 패드

**도면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리고
조각칼로 지우개를 잘라내어 한글 지우개 도장을 만들어 보세요.**

**네 개의 자음만으로 만든 한글 작품들**



활동지 2

조선왕조실록

‘조선의 일기’라는 별명이 있는 <조선왕조실록>에는 아래의 글처럼 왕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을 다 담고 있었어요.

조선왕조실록

귀양 간 코끼리

<태종 12년(1412년) 음력 12월 10일>

신하 중에 이우라는 사람이 코끼리가 신기하게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보러 갔다. 그런데 이우는 코끼리가 아주 못 생겨 보인다며 침을 뱉었다. 이에 화가 난 코끼리가 이우를 발로 밟아 사고를 당했다. 사람을 죽인 별로 코끼리는 전라도의 작은 섬으로 귀양을 갔다.

날이 더우니 죄수들을 집으로 보내라고?

<세종 23년(1441년) 음력 6월 25일>

왕이 말씀하시길 “이제 더위가 심해져서 감옥에 있는 죄인들의 괴로움이 클 테니 가벼운 죄로 갇힌 사람은 집에서 감옥살이하거라.”라고 하였다.

<세종 23년(1441년) 음력 6월 25일>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‘왕의 마음’을 아래에 적고,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.



활동지 2

나의 기록 남기기



조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타임캡슐 ‘조선왕조실록’처럼 내가 왕이 된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‘나만의 타임캡슐’ 내용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일기로 써 보세요.

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일의 제목을 정하고
위에는 간단한 그림을, 아래에는 그 일에 대한 글을 적어 보세요.